

월정사 신임 주지 후보 정념 스님

16일 산중총회서 결정... 단독 입후보 사실상 당선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 정념 스님(사진)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제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2월 6일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월정사 주지 입후보자를 등록받은 결과 현 주지 정념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1980년 화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 위원장, 강원불교연합회장, 상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지난 9월 22일에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주지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정념 스님은 12월 16일 열리는 산중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 당선으로 정념 스님은 2016년 1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4번째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된다. 또한 24개 교구본사의 현직 주지 가운데 최다선 주지로 이름을 올린다.

1천 천태불자 '일심수행 정진' 서원

천태종, 6일 신도수계산람... 안거 수행자 등 984명

천태종 안거 수행 경력 8회 이상 수행 및 전국 각 사찰서 귀감이 되는 불자 등 1천여 명의 천태불자가 오계를 수지, 보살도를 실천하며 더욱 용맹정진 할 것을 서원했다.

기쁨과 환희의 마음으로 받아 지니옵니다"라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이어 전개대화상 도용 종정 스님이 법상에 좌정한 뒤 갈마야사리인 총무원장 춘광 스님, 교수야사리인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칠중사(七證師)인 감사원장 용암·월산·도산·진덕·화산·도원 스님이 법단에 좌정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2월 4~6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제3회 총본산 구인사 금강계단 신도수계 산람대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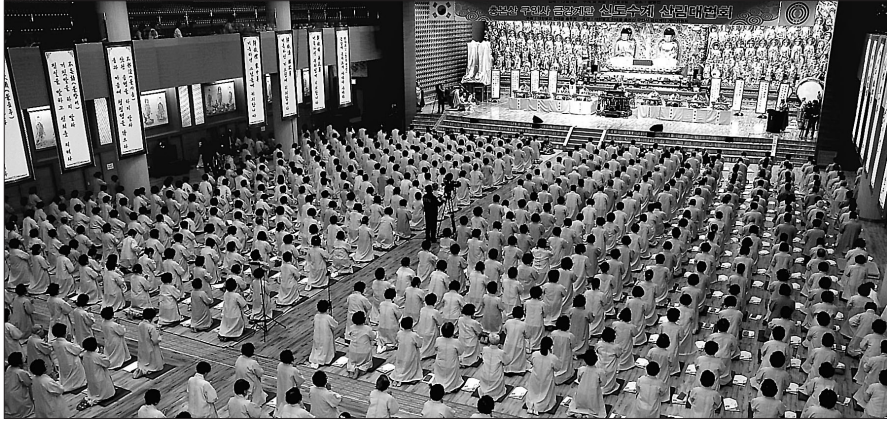
이날 수계 산람대법회는 지역 법회와 불사에 모범이 된 청신사 149명, 청신녀 835명 등 총 9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수계자들은 삼보전에 공양하겠다는 발원의 연비 의식을 거행했다.

수계 산람대법회는 4일 입제식에 이어 6일 광명전 5층서 봉행 된 수계 및 회향식은 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종의의장 문덕 스님) △고불문 △청사(삼사·칠중사) △국운음창기원 △현화 및 현향 △연비 △설계 △금강사수어 △수계증 수여 △범어 △축가(영춘 연화합장단) △관음정진 및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회향식은 수계자를 포함해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용 종정 스님은 "계는 저 맑은 연못과 같이 아름다운 연꽃 피워 내리니 계을 정정하게 받아 지니면 깨달음의 광명이 빛나리라. 해탈을 이루는 길 계의 향기 으뜸이라. 간곡하게 일러주소니 그 말씀을 잘 따르라"고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고불문서 "계는 일체 공덕장의 근본이며, 성불의 길을 가는 근본이라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 오며, 어두운 곳에서 빛을 만난 듯,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반야용선을 만난 듯

한편 수계 산람대법회는 4일 오후 입제식 후 습의교육, 5일 계율교육(삼귀의·오계), 참회정진(천태관음참의), 수계법문에 이어 6일 수계교육, 수계식, 회향식 등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은 12월 6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제3회 총본산 구인사 금강계단 신도수계 산람대법회를 봉행했다.

정상화 국면 동국대, 갈등 재점화되나

학생회 측 '총장 사퇴' 요구에 학교 측 '엄정대처'

동국대 이사장 연임을 두고 단식과 투신 예고 등 극한대립으로 치달았던 동국대 사태가 총장 퇴진을 두고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 이사들의 전원 사퇴 결의 후 정상화 기대를 모았던 동국대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조건에 따라 단식과 농성은 공식적으로 모두 해제했다. 사퇴 약속을 안 지킨다면 거짓말을 했다는 명분으로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회 "이사 즉각 사퇴, 총장 퇴진" 보광 스님 "원칙 벗어난 타협 없다" 일면 스님 "학교 명예만은 지켜야" 종단, 동국대 이사 사퇴 대책 촉구

이같은 사태 확산 조짐에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9일 학교 홈페이지에 담화문을 통해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난 타협이나 안이한 화해는 결코 동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기관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패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보광 스님은 "두 달여간 지속된 학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이사 사퇴 결단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언제부터인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호도하고 불가능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불협화음을 키워왔다"고 학생회 측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3일 이사회에서 이사 사퇴를 밝혔던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일면 스님은 "사퇴 반복은 하지 않겠다. 이사장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원칙을 정해 소임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병화 도둑으로 몰려 그만 둘 수는 없다고 이사들에게 호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님은 흥국사 행화가 절도가 아닌

분신 당한 것이라고 밝히며 당시 병화를 구입한 비구니 동기 스님의 호법부 조사 경위서 등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스님은 "전생에 지은 업이라 여기지만 더 이상 파멸치법으로 보지는 말아달라. 저와 학교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8일 동국대 이사회가 지난 3일 학교혼란의 책임을 지고 이사회 이사 전원이 사퇴를 결의한데 대해 공문을 보내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법안사무처에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종관위는 "이사회가 학교현안과 관련해 임원 전원이 공동책임을 지기로 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며 "입원 사직에 따른 절차와 이사회 구성 등 향후 계획에 대해 12월 16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회의 회신 결과에 따라 동국대 임원들의 사직절차와 후임선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덕현·윤호섭 기자

2020년 템플스테이 생산 효과 746억 원

김규호 경주대 교수

템플스테이 학술 포럼서

지난해 479억 생산 효과 유발

444명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

템플스테이, 경제 성장에 기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템플스테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한국불교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템플스테이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호 경주대 교수는 12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린 '템플스테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주제 학술포럼에서 템플스테이의 실태와 사회·문화·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템플스테이의 생산유발효과는 지난해 479억 원이었으며, 제조업과 관광산업, 서비스업 등 전체 산업에서 290억 원의 직접 효과와 180억 원의 간접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444명의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김 교수는 2020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746억 원으로 증가되고, 고용유발효과도 6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전국에 산

재돼 있는 운영사찰을 방문하면서 1인 평균 99,21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지난해 19만 3천여 명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약 193억 원의 수요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수요 예측치와 1인당 지출액을 반영한 결과 템플스테이로 인한 총 지출액은 2020년 약 3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병길 동국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결론적으로 템플스테이는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비인 참가비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본 프로그램 이외에 사찰별로 고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향후 불교학, 종교학, 철학을 아우르는 명사 초청 인문학 강좌를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고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포럼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2002년 한일월드컵과 함께 시작한 템플스테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관광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템플스테이가 국민행복과 국가 및 지역발전에서 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혜사 소유권 갈등 수석사 손 들어주나

대검, 배임·횡령 '혐의없음' 결정

대검찰청이 12월 4일 (재)선학원이 정혜사 선원장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혜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선학원 측이 더 이상 수석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됐다.

선학원은 정혜사가 선학원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한 만큼 선학원의 분원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대전지검 홍성지원과 대전고검 모두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덕숭총림 수석사 선학원대책위원회는 "선학원 이사회가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사찰에게까지 끝없는 재판으로 횡포를 부리는 행위와 세속법에 의지하여 이사회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선학원 측은 12월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선학원과 수석사의 소송은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석청 스님이 재단을 배신하고 수석사와 야합하여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작성하여 이번 판결을 날게 된 것"이라며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 했다.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경, 법무법인 지평지심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